

1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 들어가기 전에 ·

이 단원이 수능에는?

- 윤리학의 분류 파트에서 한 문항 (1번 문항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동양 윤리 파트에서 한 문항
- 서양 윤리 파트에서 한 문항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문항이 출제됩니다.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 ‘1번은 쉬우니까 윤리학의 분류 파트는 대충 공부해도 되겠지?’ 하는 식의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는 윤리학의 분류 문항 2점짜리를 틀리나, 분배 정의 문항 2점짜리를 틀리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48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윤리학의 분류 파트가 어쨌든 다른 파트보다 심화 개념이나 변별 포인트 등의 차원에서 부담이 훨씬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이라도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 동양 윤리 파트의 경우 특히 ‘제시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키워드만 빠르게 읽다가 제시문을 잘못 독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시문에 인과 예가 나온다고 반드시 유교 일까요? 도가도 인과 예를 말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맥락에서 언급할 뿐입니다. 원래 모든 생운 문항에서 제시문을 키워드로만 읽어 내는 것은 절대 금기입니다만, 동양 윤리 파트에서는 한자어가 많이 나오는 만큼 제시문 오독에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서양 윤리 파트의 경우 사상(사상가)별로 빈출되는 내용, 그리고 사상(사상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칸트의 입장에서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덕 윤리에서는 인간이 덕을 타고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편, 칸트와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중시하는 반면, 덕 윤리에서는 도덕의 기준이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보편적 도덕 원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전 개념 포 파일널에서 만나보시죠!

Step 1. 실천 개념 포 파이널

이제 기본 개념은 가라!

실전에서의 문제 풀이를 위한 심화 개념과 변별 포인트, 그리고 실수를 미리 막아주는 오늘의 요약 노트까지!

‘가치 개입적’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즉 ‘가치 판단’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에서는 규범 이론 또는 현실의 도덕 문제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메타 윤리학에서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 없이 논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 윤리학에서는 도덕 관행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규범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이론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 해당,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응용하여 낙태나 안락사 등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에 대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낙태와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는 실천 윤리학의 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끔은 아무리 보아도 제시문의 윤리학이 이론 규범 윤리학인지 실천 윤리학인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규범 윤리학’으로 처리를 해 주면 됩니다.

* 윤리학의 분류

1. 윤리학의 특징

- 이론 규범 윤리학, 실천 윤리학 : **당위(의무)**를 중시하는 **가치 개입적**인 학문
-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 **사실**을 중시하는 **가치 중립적**인 학문

2. 메타 윤리학의 역할 세 가지

- 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탐구
- ②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
- ③ 도덕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

3.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구분하기

- 이론 규범 윤리학 :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규범 이론**을 제시
- 실천 윤리학 :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제시한 규범 이론을 응용하여 현실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도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01 [25-11-01]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을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도덕 규범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강조한다. []

02 [25-11-01] 윤리학은 도덕 이론과 원리를 적용하여,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둔다. []

4. 기술 윤리학의 ‘인과적 서술’

기술 윤리학에서는 각 사회의 다양한 도덕 규범, 관행, 실태를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그런데 이때 단순히 결과적으로 존재하는 도덕 규범, 관행, 실태만을 기술하지 않고, 그것들을 발생시킨 원인으로서의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 ‘언어’, ‘사상’, ‘종교’ 등에 대해서도 탐구하여 서술한다. 이를 두고 **기술 윤리학에서는 문화, 언어, 사상, 종교 등의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한 그 사회의 고유한 도덕 규범, 관행, 실태 등의 ‘결과’를 모두 밝혀 적는다고 해서 ‘인과적 서술’을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래서 기술 윤리학은 필연적으로 문화학, 인류학, 사학 등 다른 학문의 도움을 받게 된다.

[원인] 문화, 언어, 사상, 종교 → [결과] 도덕 규범, 관행, 실태

예) 대한민국의 유교 사상(효 중시) → ‘제사’라는 도덕 관습 발생

03 [20-11-01] ① 기술 윤리학 : 윤리학은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

04 [24-06-01] ⑤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 문제의 발생에 대한 인과적 설명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

05 [21-09-01] 윤리학은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각 문화권의 다양한 도덕적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5. 기술 윤리학은 ‘경험과학적’ 학문

관찰과 실험 등에 의거하여 경험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탐구 방식을 두고 ‘경험과학’이라고 한다. 기술 윤리학에서는 실제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서술을 시도하기 때문에 경험과학적 성격을 띠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 윤리학의 입장에서는 ‘경험적’ 연구를 한다고 해도, ‘과학적’ 연구를 한다고 해도 모두 옳은 진술이 된다.

06 [20-09-01] ⑤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에 관한 경험적 서술이 갖는 의의를 간과한다. ()

07 [23-11-01] ⑤ (기술 윤리학은) 도덕규범이 형성된 인과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를 간과한다. ()

08 [25-11-01] ⑤ 기술 윤리학 :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를 경험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

심화 윤리학의 관계

윤리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실천 윤리학의 연구 결과에 따라 기존의 도덕 이론을 수정할 수 있다. 또한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메타 윤리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도덕 원리를 정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메타 윤리학에서는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하고,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메타 윤리학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각 윤리학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09 [22-09-01] ② 실천 윤리학은 현실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론 규범 윤리학을 필요로 한다. ()

10 [22-09-01] ⑤ 이론 규범 윤리학은 윤리 이론을 정립할 때 메타 윤리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오늘의 오답 노트

제시문과 선지의 “키워드”에 낚이지 말자!

오늘 윤리학의 분류 문제를 푸는데, 제시문에 ‘이론적 탐구’라는 표현이 나오길래 당연히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메타 윤리학이었다! 생각해 보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둘 다 이론적 탐구를 강조하더라.** 다만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 이론을 직접 탐구하고 정립하는 반면, 메타 윤리학은 도덕 규범의 논리적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에서는 기술 윤리학의 입장을 묻는 선지에 ‘도덕적 관행’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길래 당연히 맞다고 체크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를 틀리고 보니, 선지의 완전한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도덕적 관행에 대해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수행한다.” **바보야, 그러면 당연히 아니지. 기술 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니깐.**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을 평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서술만 하니까.

오늘 제시문과 선지를 키워드로만 읽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느꼈다. 윤리학의 분류, 쉽다고 마냥 만만하게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제시문이든 선지든 반드시 꼼꼼하게 읽는 태도를 길러야겠다.

* 동양 윤리

따라서, 제시문에 ‘도’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도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덕’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교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요? 어떤 맥락에서 도와 덕을 논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잘 파악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유교 사상가들 중에서도 순자는 독특하게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해당 파트에서 말하는 유교의 본성론이란 유교의 일반적 인 관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공자와 맹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교 사상가들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공자, 맹자, 순자가 구분되어 출제되는 ‘직업 윤리’ 파트와 ‘예술 윤리’ 파트에서만 순자의 입장을 따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1. 유교, 불교, 도가의 공통점

① 도(道)와 덕(德)을 긍정함

유교, 불교, 도가 모두 ‘도’와 ‘덕’을 긍정한다. 물론 도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사상마다 다르다.

- 유교 :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 인간다움, 인륜(人倫)의 도, 도덕적인 삶
- 불교 :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올바른 중도(中道)의 수행법[八正道(팔정도)]
- 도가 : 자연의 법칙이자 천지만물의 원리

또한, 각 사상에서 생각하는 도를 따르는 것, 이것을 각 사상에서는 덕으로 규정한다. 즉 유교, 불교, 도가의 입장에서 진정한 덕이란 바로 ‘도를 따르는 것’이다.

01 [23-09-02] ② 장자·공자 : 이상적 인간은 시비(是非)를 판별하여 도(道)를 따라야 하는가? ()

02 [25-09-16] ㄱ. 공자 : 충서(忠恕)를 통한 인의 확장은 천하의 도(道)를 이루게 한다. ()

03 [25-11-11]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그 도(道)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한다. 부귀가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이 행위를 바꾸지 못하며, 위세와 무력이 지조를 꺾지 못한다.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 한다. []

04 [24-03-06] ① 장자·공자 : 마음의 수양을 통해 도(道)를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가? ()

05 [18-11-03] ⑤ 공자·노자 : 이상적 삶을 구현하려면 누구나 덕에 따라 살아야 한다. () (윤사)

②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봄

유교, 불교, 도가 모두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물론 인간의 본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사상마다 다르다.

- 유교 : 하늘이 내려준 순선하고 도덕적인 성품
- 불교 : 불성(佛性) = 부처의 마음,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 도가 : 자연적이고 소박한 성품

따라서 유교, 불교, 도가 모두 본성을 보전하고 실현할 것을 강조한다.

반면 유교, 불교, 도가 모두 본성의 변화와 극복에는 반대한다.

06 [23-11-02] ⑤ 노자·석가모니 : 하늘이 부여한 순전한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

07 [25-09-16] ㄷ. 노자 : 무위(無爲)의 삶을 통해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08 [25-11-11] ⑤ 맹자·노자 : 도를 따르는 사람은 곧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

09 [26-09-03] ④ 맹자 : 본성을 함양하고[養性] 인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10 [20-03-06] ② 맹자 :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본성[性]에 따라 행동하세요. ()

11 [20-03-06] ③ 맹자 : 순선(純善)한 본성을 형성하여 도덕적인 선택을 하세요. ()

12 [20-03-06] ⑤ 맹자 :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여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발휘하세요. ()

13 [21-03-18] ① 불교 사상 :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불성(佛性)을 형성해야 한다. ()

14 [21-10-09] ③ 장자 :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고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

③ 개인의 수양을 강조함

- 유교 : 경(敬)[거경(居敬)], 성(誠), 신(愼)[신독(愼獨)]
- 불교 : 삼학(三學)[계(戒), 정(靜), 혜(慧)], 팔정도(八正道)
- 도가 : 좌망(坐忘), 심재(心齋)

- 15 [26-06-09] ㄷ. 장자 : 모든 분별을 잊어서 잊되[坐忘] 참된 나를 되찾아야 한다. ()
- 16 [21-09-02] ① 불교 사상 : 내 마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참선(參禪)해야 한다. ()
- 17 [21-09-02] ② 불교 사상 : 모든 분별적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좌망(坐忘)해야 한다. ()
- 18 [21-09-02] ③ 불교 사상 :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거경(居敬)해야 한다. ()
- 19 [21-09-02] ④ 유교 사상 :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신독(愼獨)해야 한다. ()
- 20 [21-09-02] ⑤ 유교 사상 : 도(道)에 따라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기 위해 심재(心齋)해야 한다. ()
- 21 [25-06-20] ㉠ (불교 사상은) 팔정도(八正道)의 수행을 통해 열반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 ()
- 22 [21-10-09] ⑤ 장자 : 조용히 앉아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려야 하는가? ()

④ 수양과 노력을 통해 누구나 이상적 인간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유교 : 성인(聖人), 군자(君子), 선비, 대인(大人), 대장부(大丈夫)
- 불교 : 성인(聖人), 부처, 보살
- 도가 : 성인(聖人), 진인(真人), 신인(神人), 지인(至人), 천인(天人)

- 23 [21-09-02] 요즘 중생은 자신에 대한 집착과 망상에 빠져 자기 본성이 참된 진리 그 자체임을 모르고, 마음 밖에서 그 진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맨다. 만약 한 생각이 나온 곳으로 빛을 돌이켜 자기 본성을 비춰 보면, 이 본성은 원래 번뇌가 없는 완전한 지체로, 마음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어서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
- 24 [23-06-02] 옳다는 것으로 인해 그른 것이 있고, 그르다는 것으로 인해 옳은 것이 있다. 진인(真人)은 대립적인 말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대립을 넘어서 자연에 비추어 사유한다. []
- 25 [23-09-02] 참된 사람[真人]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성공을 뽐내지 않으며, 일을 도모하지도 않는다. … (중략)… 이로움[利]과 해로움[害]을 구별하는 자는 군자(君子)가 아니다. 명예를 위해 참된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는 선비[士]가 아니다. []
- 26 [23-09-02] 군자는 의로움[義]으로써 근본을 삼고, 예(禮)로써 실천하며, 공손한 몸가짐으로써 표현하고, 신의로써 일을 이룬다. …(중략)… 군자는 죽은 뒤에 자신의 이름[名]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 []
- 27 [23-11-02] 성인(聖人)의 은혜가 만세에 베풀어져도 사람에게 특별히 치우치지 않는다. 친함이 있으면 어진 자가 아니며, 명성을 추구하여 참된 자기를 잃으면 선비가 아니다. []
- 28 [25-11-11]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그 도(道)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한다. 부귀가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이 행위를 바꾸지 못하며, 위세와 무력이 지조를 꺾지 못한다.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 한다. []
- 29 [25-11-11] 예(禮)라는 것은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이 알팍해진 결과이며 혼란의 원인이다. 선부르게 내다보는 것은 도가 꾸며진 것이자 어리석음의 단초이다. 그러니 대장부는 중후함에 처하며 알팍한 곳에 거하지 않는다. []

‘삼학’과 ‘삼독’은 다릅니다. 삼학은 불교의 세 가지 수행법(계, 정, 혜)이고, 삼독은 불교에서 제시하는 번뇌의 세 가지 원인(탐, 진, 치)으로, 제거의 대상입니다.

도가는 인위적인 것을 싫어하므로 수양 역시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에서도 수양을 긍정합니다. 다만 그 수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을 축적하고 공부하는 유교식 수양과는 다소 다른, 마음을 비우고 분별적 지식을 잊으며 인위적인 관념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경지는 깨달음을 통한 해탈과 열반의 경지이므로 불교에서 제시하는 부처나 보살은 결국 깨달음을 통해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무명(無明)과 집착으로 인한 번뇌에 시달리고 있는, 그래서 윤회의 굴레를 돌고 있는 일반 사람을 두고는 중생(衆生)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중생이여’ 같은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오답 노트

제시문과 선지의 “키워드”에 낚이지 말자!

‘윤리학의 분류’ 파트에서 제시문을 키워드만 읽다가 낚여서 그러지 말자고 다짐했었는데, ‘동양 윤리’ 파트에서도 무심코 그렇게 하다가 문제를 또 틀려 버렸다. ‘군자’, ‘선비’, ‘대장부’ 같은 키워드만 보고 당연히 유교 제시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도가였던 경우가 많았다!

반드시 기억하자. **군자, 선비, 대장부, 인의예지, 예의, 현자 같은 유교의 키워드가 등장한다고 해서 그 제시문이 반드시 유교의 제시문이라는 보장은 없다.** 유교의 키워드가 등장했다라도, 해당 키워드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교의 키워드를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유교이겠지만, 유교의 키워드를 부정적으로 혹은 비판적인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도가일 수도 있는 것이다.

2. 유교의 ‘인(仁)’

유교에서 말하는 인(仁)이란 ‘타인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자 ‘내면적 도덕성’이자 **사회적 존재로 완성되는 ‘인간다움’**이다. 유교에 따르면 ‘인’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선한 본성의 핵심이자, 인간의 선천적인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교의 ‘인’은 존비(尊卑)와 친소(親疏), 즉 사람의 귀천과 나와 가까운 정도에 대한 분별을 전제로 하는 **차별적인 사랑[別愛(別애)]**이다. 그런데 공자에 따르면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은 나의 가족, 즉 나의 부모, 그 다음이 형제자매이다. 따라서 나는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모에 대한 사랑인 효(孝)와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인 제(悌)**는 ‘인’의 근본이자 출발점이 된다.

‘인’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충(忠)**과 **서(恕)**가 있다.

- 충 : 나의 마음에 충실하여, 거짓되는 부분 없이 진심을 다하는 것
- 서 : 역지사지(내가 하고 싶으면 남부터 하게 해 주고, 내가 싫으면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

30 [22-11-02] ⑤ 공자 : 인(仁)의 시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다. ()

31 [24-06-02] ② 맹자 : 서(恕)의 실천을 통해 진정한 인간다움(仁)을 이룰 수 있다. ()

32 [26-06-04] ① 공자 : 사회 혼란을 해결하려면 서로 차별 없이 사랑[兼愛]해야 한다. ()

33 [24-07-06] ① 맹자 : 인의는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서 사람을 사랍답게 하는 것이다. ()

3. 불교의 ‘인연생기설(연기설)’

—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조건)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

-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며, **독립적인 실체는 없음**
→ 따라서 **자타불이(自他不二), 자비(慈悲)의 정신으로 만물을 평등하게 사랑해야 함**
- 모든 것은 변화하며,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음**
→ 따라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됨**

34 [23-06-02] ① 석가모니 : 자아의식은 변하지 않는 실체임을 알아야 한다. ()

35 [23-06-02] ② 석가모니 : 정신에는 집착해도 물질에는 집착해서는 안 된다. ()

36 [23-11-02] ③ 석가모니 : 바른 수행으로 만물이 서로 독립하여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 ()

37 [23-11-02] ④ 석가모니 : 연기법에 대한 자각을 통해 변하지 않는 자아를 깨달아야 한다. ()

38 [24-09-11] 르. 노자·석가모니 :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

39 [24-11-06] ④ 석가모니 :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만물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 ()

자타불이란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남을 대할 때나 자신을 대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기설에 따르면 결국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남이 존재하기 때문이니까요. 또한 **자비의 정신**이란 만물에 대한 **평등한 사랑의 정신**을 말합니다.

한편 연기설에서 도출되는 두 가지 결론, 즉 **‘독립적인 실체는 없음’**과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음’**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이는 애초에 연기설의 예외, 즉 세상의 존재와 현상 중 연기설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4. 도가 사상

① 도(道) : 자연의 원리이자 천지만물의 근원

- 형태 X 목적 X 의도 X 언어로 규정 X 감각으로 인식 X 지식으로 축적 X
- 질서 O 작용 O

- 40 [24-07-06] ③ 노자 : 도는 인간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지만 우주 만물을 낳는다. ()
- 41 [21-09-05] ③ 노자 : 도는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지만 언어로 규정할 수는 있다. () (윤사)
- 42 [26-06-12] ㄴ, 노자 : 만물의 근원인 도는 언어로 한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윤사)
- 43 [22-07-01] ③ 장자 : 오감(五感)으로 파악한 도(道)의 원리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 (윤사)

② 무위(無爲)

도가에서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때 무위하라는 것이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무위하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예컨대 자연의 흐름에 부합하는 행위는 당연히 해도 된다. 그러나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는 온갖 인위적인 행위, 예를 들면 **문명과 문화의 발달, 부와 명예의 추구, 현자(賢者) 숭상, 인의예지(仁義禮智) · 예의(禮義) · 인륜(人倫) 같은 인위적인 규범의 강조** 등은 도가의 입장에서 **지양의 대상이 된다**.

- 44 [23-11-02] ② 노자 : 사욕(私慾)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
- 45 [26-06-04] ⑤ 노자 : 마음을 집중하고 몸가짐을 살피 예(禮)를 완성해야 한다. ()
- 46 [26-09-03] ① 노자 : 오륜(五倫)의 도를 행하여 도덕 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 ()

③ 소요유(逍遙遊) : 절대 자유의 경지

도가에서는 일체의 구별, 분별, 차별을 부정한다. 그 이유는 모든 구별과 분별과 차별은 자연이 아니라 결국 인간이 세운 기준, 즉 인위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도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신이 어떤 인위적인 관념과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고 한없이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하는 것**, 즉 **‘절대’ 자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를 두고 장자는 **소요유(逍遙遊)**라는 말로 표현한다.

- 47 [22-11-02] ④ 노자 : 시비선악(是非善惡)을 구분하여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
- 48 [23-09-02] ⑤ 장자 : 이상적 인간은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자연을 따르는 사람인가? ()
- 49 [21-03-18] ④ 도가 사상 : 본성에서 벗어나 절대적 자유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
- 50 [24-09-18] ㄱ, 장자 : 심재(心齋)로써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서 노닐어야 한다. () (윤사)

도가에 따르면 도에는 어떠한 목적도 없습니다. 즉 **도는 목적 없이 그저 자연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道法自然(도법자연)]**. 이처럼 도에는 목적이 없다는 질서가 존재하므로, 도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도는 ‘무목적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도는 분명히 작용합니다**. 도가에 따르면 모든 것은 되돌아갑니다. 깨끗했던 것이 더러워지고, 더러웠던 것이 깨끗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는 다시 돌아가는 작용, 즉 되돌아감[反]의 작용을 합니다**.

도가에서는 가치 분별을 지양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본다는 이유로, 도가에서 제시하는 자유의 경지 역시 상대적일 거라고 생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에서 추구하는 자유의 경지는 때에 따라 자유롭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상대적’ 자유의 경지가 아니라 분명히 ‘절대적’ 자유의 경지입니다. 그 이유는 소요유란 모든 인위적인 기준을 다 벗어난 상태로서, 어떤 기준에도 얽매이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항상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나누는 기준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저 개인의 단순한 총합에 불과할 뿐이며, 개인이 모여 있는 것을 달리 이름한 것이라고 보면 개인주의입니다. 반면 공동체는 개인의 단순한 총합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예를 들어 30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의 능력은 단순히 30명의 능력을 모두 합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30명의 능력을 합친 것에 더해 그 이상으로 공동체만이 낼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리주의도 분명히 개인주의입니다. 공동체의 이익, 즉 '공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를 공동체주의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리주의에서는 공동체란 개인의 총합일 뿐이며, 공익 역시 사익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리주의도 결국에는 개인주의에 속하게 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규칙은 모두 준칙입니다. 예컨대 '나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야겠다'도 준칙이고, '피곤한 날에는 옆에 앉은 친구를 한 대씩 때려야지'도 준칙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도덕 법칙이 되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지요. 후자는 보편성 정칙과 인간 존엄성 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피곤하다고 옆에 앉은 친구를 때리는 것은 차마 보편화될 수도, 또한 그 친구를 수단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아니지요?

* 서양 윤리

1. 공리주의·칸트 VS 덕 윤리

① 개인주의(자유주의)? 공동체주의?

- 공리주의, 칸트 : 개인주의(자유주의)
- 덕 윤리 : 공동체주의

- 01 [20-11-05] ⑤ 벤담 : 공익은 사익의 총합보다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선택하세요. ()
- 02 [21-11-07] ③ (매킨타이어가 벤담에게) 공동체가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 03 [24-06-03] ㄴ. 매킨타이어 : 개인은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 ()

② 보편적 도덕 원리?

- 공리주의, 칸트 : 보편적 도덕 원리 긍정
- 덕 윤리 : 보편적 도덕 원리 부정(도덕의 기준이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음)

- 04 [21-09-03] ⑤ (매킨타이어가 칸트에게) 도덕이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도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 05 [22-09-03] ⑤ 칸트·벤담 :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보편적 원칙은 존재한다. ()
- 06 [24-06-03] ㄱ. 매킨타이어 : 공동체의 선보다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더 중시해야 한다. ()
- 07 [24-06-03] ㄴ. 매킨타이어 :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은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
- 08 [25-09-11] ⑤ 벤담 :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는 없음을 유념하세요. ()

2. 공리주의 VS 칸트 VS 덕 윤리

- 공리주의 : 도덕 판단 시 행위의 결과 중시
- 칸트 : 도덕 판단 시 행위의 동기 중시
- 매킨타이어 : 도덕 판단 시 개별 행위 자체보다 행위자의 품성 중시

- 09 [22-09-03] ① 칸트 : 좋은 결과를 산출한 행위도 옳지 않은 행위일 수 있다. ()
- 10 [24-06-03] ㄷ. 매킨타이어 : 도덕 판단을 할 때 행위자보다 행위 자체를 중시해야 한다. ()

3. 칸트의 의무론

① 준칙과 도덕 법칙의 관계

인간은 자신의 이성으로 주관적인 행위 규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데, 이때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규칙을 두고 '준칙(격률)'이라고 한다. 준칙은 도덕적일 수도 있고, 비도덕적일 수도 있다. 이때 어떤 준칙이 도덕적인 준칙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두 가지 기준이 바로 '보편성 정칙'과 '인간 존엄성 정칙'이다.

- 보편성 정칙 : 해당 준칙이 보편화될 수 있는가?
- 인간 존엄성 정칙 : 인간을 한낱 수단이 아닌,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는가?

이 두 가지 정칙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된다.
즉 도덕 법칙보다 준칙이 더 큰 범위이며, 준칙의 일부가 도덕 법칙이 되는 것이다.

- 11 [19-03-11] ① 칸트는 개인의 준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 12 [20-09-11] ④ 칸트 : 보편화 가능한 행위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윤사)
- 13 [24-11-17] ② 칸트 : 정언 명령의 보편화 검증을 통과해야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된다. () (윤사)
- 14 [22-11-16] ④ 칸트 :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 (윤사)
- 15 [20-03-07] ⑤ 칸트 : 자신의 준칙을 따르는 사람은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다. () (윤사)

칸트는 감정을 동기로 일어난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지요. 즉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없는지는 칸트와 매킨타이어의 대표적인 차이점**입니다.

5. 매킨타이어의 현대 덕 윤리

- ① 도덕 판단 시 개별 행위 자체보다, **행위를 한 행위자의 품성**이 더 중요함
- ② 공동체주의 :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인간관계, 공동체의 특수한 맥락이 중요함**
- ③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비롯되는 행위야말로 도덕적이며**, 덕 있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할 법한 행위를 해야 함

28 [25-06-04] ② 매킨타이어 : 관습을 따르기보다 자율적 준칙에 따라 소신 있게 행동하세요. ()

29 [25-06-04] ③ 매킨타이어 : 공동체의 도덕적 전통에 구애됨 없이 도구적 이성에 따라 행동하세요. ()

심화 아리스토텔레스와 매킨타이어의 공통점 & 둘을 구분하는 방법

아리스토텔레스와 매킨타이어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 ① **행위자의 품성을 중시함**
- ② **덕 = 후천적 형성의 대상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X)**

둘을 구분하는 방법 ; 제시문에 ‘지성적 덕’, ‘중용’ 등 아리스토텔레스의 키워드가 있으면 아리스토텔레스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키워드 없이 그저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덕을 강조하고 있거나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면 매킨타이어이다.

30 [23-11-04] 도덕적 덕은 대상에 있어서의 중간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중용에 의존한다. 중용은 두 악덕, 즉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

31 [25-06-04] 덕은 인간이 습득한 하나의 성질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실천 관행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덕의 결여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들의 성취를 방해한다. 핵심적 덕들이 없다면 우리는 실천 관행에 내재된 선에 접근할 수 없다. []

32 [21-06-12] ① 매킨타이어 : 인간은 타고난 덕을 실천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

33 [23-03-16] ② 아리스토텔레스 : 인간은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품성적 덕을 길러야 한다. ()

Step 2. 연계 교재 고난도 제시문

수능 전에 이 제시문들은 꼭 보고 들어가자!

2026학년도 수능특강·수능완성 고난도 제시문 모음!

현대 사회는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윤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윤리학은 과학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로 제기되는 생명, 환경, 정보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에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①

윤리학은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도덕 판단과 행위의 근거를 제시하고 현실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②

개인이 지닌 도덕은 삶에 대한 그의 경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차원에서도 과학적 탐구를 통해 현실적 도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③

윤리학은 학문의 목적을 도덕 규범의 정립이나 체계화에 두기보다는 윤리학 자체에 대한 비판적 자기 분석을 통해서 도덕 언어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도덕 추론 과정의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④

윤리학은 학문의 목적을 도덕 언어 분석이나 도덕 추론 과정의 논리적 분석에 두기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바람직한 도덕적 판단이나 표준 혹은 규칙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도덕적 판단이나 규칙의 정당한 근거를 찾는 데 두어야 한다.

①

윤리학의 과제는 도덕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즉 도덕적 개념과 그 개념이 도덕적 논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다.

②

윤리학의 목적은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룬다. 그럼으로써 현실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③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어떤 도덕 판단에 관한 수용과 거부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할 때 수반되는 논증 구조를 명백히 밝혀내는 것이다. 즉 윤리적 진술 사이의 논리적 구조를 검증하여 명확한 논리성을 제시해야 한다.

④

윤리학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규범의 체계를 정립하고, 정립된 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를 탐구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①

윤리학은 안락사, 사형 제도 등과 같이 삶의 실천적 영역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②

윤리학은 한 사회에 존재하는 도덕적 관행과 그것이 형성된 배경에 대해 과학적이며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설명하는 일에 연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③

윤리학은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모색해야 하며,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 분석에 연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④

탁월성은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 상태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중용에 의존한다. 이 중용은 이성애 의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할 그런 방식으로 규정된 것이다. 중용은 두 악덕, 즉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또 감정에서나 행위에서나 악덕의 한편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에 모자라고 다른 한편은 지나친 반면에, 탁월성은 중간을 발견하고 선택한다는 것을 보아서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까닭에 탁월성은 그것의 실체와 본질을 말하는 정의(定意)를 따르자면 중용이지만, 최선의 것과 잘 해냄의 관점을 따르자면 극단이다.

①

도(道)를 잃으면 덕(德)이 나타나고, 덕을 잃으면 인이 나타나며, 인을 잃으면 의가 나타나고, 의가 없어지면 예가 나타난다. 높은 예[上禮]를 실천한다는 사람은 억지로 일을 한다. 그러나 아무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소매를 걷고 남에게 강요한다.

②

나는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부족, 나의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책무를 물려받는다. 그것들은 나의 삶의 주어진 사실과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이것은 나의 삶에 그 나름의 도덕적 특수성을 부분적으로 제공한다.

③

출가자가 가까이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그것은 저열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여래는 중도(中道)를 완전히 깨달았다.

④

참된 도(道)의 입장에서서는 다 같이 하나가 된다. 한쪽에서의 분산은 다른 쪽에서의 완성이며, 한쪽에서의 완성은 다른 쪽에서의 파괴이다. 모든 사물은 완성이건 파괴이건 다 같이 하나이다. 다만 도에 다다른 자만이 다 같이 하나임을 깨달아, 자기의 판단을 내세우지 않고 사물을 평상시의 자연스러운 상태 속에 맡겨 둔다. 모든 것을 그저 자연에 맡길 뿐, 그러면서도 그런 따위를 의식하지 않는다. 그것은 도라고 한다.

①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더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②

큰 도(道)가 무너지면 인(仁)이니 의(義)니 하는 것이 나서고, 지략이니 지모니 하는 것이 설치면 엄청난 위선이 만연하게 된다. 가족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효(孝)니 자(慈)니 하는 것이 나서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충신이 생겨난다.

③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내버려두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을 모르니 슬프다. 사람들은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을 알면서도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④

덕은 실천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천에 내재하는 선의 성취를 가능하게 만드는 성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덕은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고통, 위험, 유혹, 고민거리를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종의 선에 관한 탐구에서 우리를 격려한다.

①

나는 의지로부터 어떤 법칙의 준수에서 의지로 생길 수도 있는 모든 충동을 빼앗았으므로, 남는 것은 오로지 행위 일반의 보편적 합법칙성뿐이고, 이것만이 의지의 원리로 쓰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나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어야만 할 것을 내가 의욕할 수 있도록 오로지 그렇게 처신해야만 한다.

②

사람들은 본성을 버리고 각기 제 마음만을 따르며 서로의 마음속을 엿보아 천하를 안정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뒤에 장식을 달고 박식(博識)을 덧붙였으나 장식은 본질을 잃게 하고 박식은 마음을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그 뒤부터 백성은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그 참된 본성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③

옛날에 착한 본성을 세상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나라를 잘 다스렸으며,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면 먼저 자기 집안을 바로잡았으며, 자기 집안을 바로잡고자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의 몸을 닦았고, 자신의 몸을 닦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자신의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앎을 지극한 경지에 이르도록 하였다. 자신의 앎을 지극한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일은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밝히는 데 있다.

④

행위의 모든 도덕적 가치의 본질적인 면은 도덕 법칙이 의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 있다. 의지 규정이 비록 도덕 법칙을 좇아서 일어난다고 해도, 그러나 어떤 종류의 것이 됐든 감정을 매개로 해서만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법칙을 위해서(법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행위는 적법성(합법성)은 포함하겠지만 도덕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무릇 동기(動機)라는 말이 그의 이성이 본성상 이미 객관적 법칙을 반드시 좇지는 않는 어떤 존재자의 의지를 주관적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뜻한다면, 첫째로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나올 것이다. 즉 신의 의지에는 전혀 아무런 동기도 부가할 수 없으며, 그러나 인간 의지의 동기는 결코 도덕 법칙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일 수가 없고, 행위의 객관적 규정 근거는 항상 그리고 오로지 동시에 그것의 주관적으로 충분한 규정 근거이어야 한다.

①

임금을 섬기는 사람은 임금을 섬김에 거스르지 않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사직을 편안하게 하는 신하는 사직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자이다. 하늘의 백성[天民]이 있는데, 높은 지위에 올라 자신의 도가 천하에 행해질 만해야 행하는 자이다. 큰 사람[大人]이 있는데, 자기 몸을 바르게 함으로써 남도 저절로 감화되어 바르게 되도록 하는 자이다.

②

자연의 아름다움, 예술의 발전 등 수많은 일들이 교양 있는 사람의 관심을 끈다.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지성인이라면 자기 만족의 유혹을 이겨 내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원인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고상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③

호연지기(浩然之氣)의 성질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며, 곧음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그 기의 성질은 의로움과 바른 도(道)에 짝이 되는 것이어서 그것이 없다면 허탈해진다. 그것은 의로움을 거듭하여[集義] 만들어 내는 것이지, 하나의 의로움으로 갑자기 취하는 것이 아니다.

④

자연의 사물은 모두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오로지 이성적 존재자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라, 다시 말해 원리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내지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지를 객관적인 법칙에 맞게 규정하는 것은 ‘강요’, 곧 ‘자기 강제’이다.

①

어떤 의견이 침묵을 강요당한다면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의견은 진리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절대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침묵을 강요당한 의견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르며, 실제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일반적이거나 지배적인 의견은 거의 또는 결코 완전한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의 나머지 부분이 보충될 수 있는 기회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충돌될 때에만 주어진다. 일반에게 널리 인정되는 의견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전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활발하고 진지하게 논쟁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실제로 논쟁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편견을 품게 되어 진리의 확신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이해하고 실감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②

성인(聖人)은 억지로 도모하지 않고 말을 앞세우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이 나고 자람이 자신에게서 비롯됐다고 하지 않고, 만물을 소유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뜻한 바를 이루어도 안주하지 않기에 버림받을 일 또한 없다.

③

자연의 만물은 영원법에 종속되어 있다. 인간은 영원법에 특별한 방식으로 따른다. 즉 인간은 신이 심어 놓은 본성의 법칙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영원법의 섭리에 참여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신의 섭리에 의해 창조되었으면서 동시에 신의 섭리에 따를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영원법에 대한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④

사람은 소·돼지 따위의 가축을 먹고, 순록은 풀을 먹으며, 지네는 뱀을 먹기 좋아하고, 올빼미는 쥐를 먹기 좋아한다. 이 넷 중 어느 쪽이 올바른 진짜 맛을 알고 있다고 하겠는가. 암원숭이는 긴팔원숭이가 짝으로 삼고, 순록은 사슴과 교배하며,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논다. 모장이나 여희는 사람마다 미인이라고 하지만, 물고기는 그를 보면 물속 깊이 숨고, 새는 그를 보면 하늘 높이 날아 오르며, 순록은 그를 보면 기운껏 달아난다. 이 넷 중 어느 쪽이 이 세상의 올바른 진짜 아름다움을 알고 있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천하의 인의(仁義)의 발단이나 시비(是非)의 길은 어수선하고 어지럽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 구별을 알 수 있겠나.

①

백성을 정령[政]으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함이 없다. 그러나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다스리면,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한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

②

세상을 얻기 위해서는 함이 없음[無事]을 실천해야 한다. 세상에 금하고 가리는 것이 많을수록 사람이 더욱 가난해지고, 법이나 명령이 요란할수록 도둑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③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버리고 예(禮)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모두 인(仁)으로 돌아가게 된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법령만을 내세우면서 형벌로 억누르면 백성은 형벌을 피하려고만 할 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④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곧 여러분이 내게 사형을 평결함으로써, 신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에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비웃겠지만, 만일 여러분이 나를 사형에 이르게 한다면, 그런 후에는 내 역할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고귀한 혈통을 지닌 데다가 힘이 있긴 하지만 몸집이 크고 다소 둔하고 느려서 등애를 붙여 정신이 번쩍 나게 해야 하는 말[馬] 같기 때문입니다. 신께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 등애의 역할을 하라고 이 나라에 꼭 붙여 놓으시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꼭 붙어서 종일 끊임없이 설득하고 책망하여 정신이 번쩍 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만한 정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난받아야 할 무지가 아닐까요?

①

큰 도(道)가 없어지면 인의(仁義)가 생겨나고, 총명하고 기교한 현상이 나타나면 위선과 가식이 생겨난다. 가정에 화목이 깨지게 되면 효성과 자애가 나타나고, 국가가 혼란스러우면 충신이 출현한다. 훌륭한 통치자는 백성이 그의 존재만 알 뿐이다. 통치자가 성심이 부족하면 백성은 그를 믿지 않는다.

②

어떤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그 행위가 규칙에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한다. 즉 최대 공리를 갖는 행위의 규칙을 세우고, 어떤 행위가 그 규칙에 일치한다면 도덕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경향성은 그것이 좋은 종류의 것이든 아니든 간에 맹목적이며 노예적이다. 행복은 욕구 능력인 의지의 규정 근거를 쾌와 불쾌의 감정에 둔다. 행복은 이성(理想)이 아니라 경험적 근거에서 기인하는 상상력의 이상이다.

④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 쾌락과 고통이라는 이 두 주인의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우리들의 노력은 오히려 우리가 그 두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확인시켜 줄 뿐이다.

①

하늘이 내려 준 작위인 천작(天爵)이 있고, 사회에서 사람이 내려 준 인작(人爵)이 있다. 인의와 충신을 행하고 선을 즐기는 것은 천작이고, 공경과 대부는 사람이 내려 준 인작이다. 인작을 추구함으로써 천작을 버려서는 안 된다.

②

하늘의 도(道)는 사계절의 운동을 되풀이하며 한 계절에 머물러 있는 일이 없다. 그리하여 만물이 성장하는 것이다. 하늘의 도를 알고 성인의 도에 통달하며, 무위의 덕을 체득한 사람은 그 행위에 어떠한 꾸밈도 없고 고요할[靜] 뿐이다.

③

군주는 왕도(王道)를 실천하여 백성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겨야 하며, 과부나 고아와 같이 곤궁한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어진 정치의 도를 얻으면 온 천하의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④

군주가 지혜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에 해가 되고, 지혜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나라에 복이 된다. 어느 것도 억지로 함이 없이 다스린다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①

반드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는 데에 종사하되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말 것이며, 단지 마음에 새겨 이를 잊지 말 것이고, 자연스럽게 성장(生長)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장(助長)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천하의 사람들은 벼 싹이 자라는 것을 조장하여 벼 싹을 뽑아 올리고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는 자가 없다.

②

살생(殺生)하는 자는 몸이 부서져 죽은 뒤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진 곳 또는 나쁜 곳 또는 아래로 떨어져 있는 곳 또는 지옥에 태어나게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태어나는 곳마다 그 수명이 짧게 되는 것이다.

③

하늘[天]은 타고난 성질을 거슬러 억지로 행하는 바가 없으니[無爲] 항상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땅 역시 억지로 행하는 바가 없으니 항상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하늘과 땅의 자연스러운 운행이 합쳐서 만물이 탄생하게 되는데, 황홀하여 도무지 어디서 탄생하는지 알 수가 없다.

④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서 공동체의 이익에 대해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공동체의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익 총합이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인 개인들의 행복, 즉 그들의 쾌락과 안전은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목적, 그것도 유일한 목적이다. 따라서 쾌락의 추구하고 고통의 회피는 입법자가 살펴보아야 할 목적이다.

①

세상에 법령이 많을수록 도둑이 들끓게 되며, 백성에게 세련된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혼란해진다. 성인은 인(仁)을 굶고 의(義)에 얹매이지 않으며 무위(無爲)에 머물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또한 만물을 잘 자라게 해 주면서도 가지려 하지 않고 공(功)을 이루어도 내세우지 않는다.

②

Step 3. 고난도 O/X 선지 테스트

2026학년도 수능특강·수능완성 심화 개념 전격 반영!

평가원 기출 소스와 헛갈리기 쉬운 포인트는 덤으로 얻어가자!

(1) 기술 윤리학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도 그 개인의 경험의 일부라고 본다.	(○ / ×)
(2) 기술 윤리학에서는 도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시도한다.	(○ / ×)
(3)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하므로 규범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	(○ / ×)
(4) 실천 윤리학은 인접 학문과의 연계 없이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 / ×)
(5) 실천 윤리학과 달리 기술 윤리학에서는 사회의 도덕 문제를 사실 판단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 / ×)
(6) 기술 윤리학에서는 윤리 문제에 대한 가치 중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 / ×)
(7) 메타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논의의 의미론적 연구가 윤리학의 목적 중 하나라고 본다.	(○ / ×)
(8) 메타 윤리학에서는 도덕 문제가 특정 규범의 적용보다 언어 분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 / ×)
(9) 메타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도덕 규범의 정립보다 도덕적 담화의 의미 분석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 / ×)
(10) 기술 윤리학에서는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할 사실의 집합으로 간주한다.	(○ / ×)

— M E M O —

(1) 메타 윤리학에서는 윤리학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윤리학의 방법론적 조건을 탐구해야 한다고 본다.	(○ / ×)
(2) 기술 윤리학에서는 각 사회의 도덕 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 / ×)
(3) 메타 윤리학과 달리 기술 윤리학에서는 사회의 관습을 경험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본다.	(○ / ×)
(4)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 / ×)
(5) 메타 윤리학에서는 행위의 옳고 그름과 같은 실천적 물음에 대한 해답 제시가 윤리학의 주된 역할이 아니라고 본다.	(○ / ×)
(6) 실천 윤리학에서는 현실의 윤리 문제 해결 방안의 근거로 규범 이론을 활용한다.	(○ / ×)
(7) 이론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에서는 실천 윤리학과 달리 가치 판단 없이 도덕 이론을 정립하는 데 주력한다.	(○ / ×)
(8) 메타 윤리학에서는 도덕 판단의 진위를 확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윤리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 / ×)
(9)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에서는 모두 보편적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 / ×)
(10) 실천 윤리학에서는 도덕 명제를 사실 판단으로 규정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 / ×)

MEMO

(1) 실천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에서는 모두 윤리학이 도덕 규범을 정립함으로써 도덕적 삶의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 / ×)
(2)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메타 윤리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 ×)
(3) 메타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의 목적이 도덕 규범의 정립이나 체계화에 있지 않다고 본다.	(○ / ×)
(4) 메타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선악의 내용보다는 언어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 / ×)
(5) 메타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당위의 관점에서 보편적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 / ×)
(6) 기술 윤리학에서는 개인의 생활과 사회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 ×)
(7) 실천 윤리학에서는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는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 ×)
(8) 메타 윤리학에서는 도덕 판단의 논리적 구조 분석을 윤리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 / ×)
(9) 실천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 / ×)
(10) 규범 윤리학에서는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에 대한 탐구를 중시한다.	(○ / ×)

MEMO

(1) 기술 윤리학과 달리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사실적 관찰보다 당위적 명령을 중시한다.	(○ / ×)
(2) 메타 윤리학과 달리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선악의 의미를 탐구하지 않는다.	(○ / ×)
(3) 실천 윤리학에서는 옳음과 그림의 당위적 기준에 대한 탐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 / ×)
(4) 실천 윤리학에서는 현실의 도덕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윤리학의 유일한 본질이라고 본다.	(○ / ×)
(5) 실천 윤리학에서는 도덕 원리 정립보다 윤리 문제 해결을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 / ×)
(6) 실천 윤리학에서는 다른 학문과 연계한 간학문적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 / ×)
(7) 실천 윤리학에서는 선악의 의미를 가치 중립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윤리학의 주요한 과제로 본다.	(○ / ×)
(8) 이론 규범 윤리학과 달리 실천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관습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라고 본다.	(○ / ×)
(9) 실천 윤리학과 달리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옳음과 그림의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에 대한 탐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 / ×)
(10) 메타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보다 도덕 명제를 분석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 / ×)

— M E M O —

(1)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구체적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 / ×)
(2) 메타 윤리학에 따르면 윤리학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여 가치 지향적으로 진술하는 것이다.	(○ / ×)
(3) 메타 윤리학과 달리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언어에 대한 검증보다는 도덕 원리의 정립을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4) 메타 윤리학과 달리 기술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도덕적 신념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가치 중립적 진술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 / ×)
(5)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에서는 모두 윤리학이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 / ×)
(6) 메타 윤리학에서는 규범 이론의 도덕적 추론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강조한다.	(○ / ×)
(7) 기술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경험에 근거한 탐구를 토대로 사실적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8) 이론 규범 윤리학과 달리 실천 윤리학에서는 도덕 원리의 체계적인 정립보다 새로운 윤리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9) 규범 윤리학과 달리 기술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경험 과학을 활용하여 도덕적 관행을 인과적으로 탐구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 / ×)
(10)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삶의 지침이 될 도덕적 표준이나 기준을 탐구해야 한다고 본다.	(○ / ×)

MEMO

(1) 실천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 / ×)
(2)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실천 윤리학과 달리 도덕 문제를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 / ×)
(3) 실천 윤리학에서는 이론 규범 윤리학과와 유기적 관계 없이 다양한 학문 영역의 지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 / ×)
(4)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모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인 도덕 원리에 관심을 갖는다.	(○ / ×)
(5) 실천 윤리학에 따르면 도덕 이론에 대한 탐구는 현실적인 도덕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 / ×)
(6) 실천 윤리학에서는 도덕 관행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윤리학의 주된 목표라고 본다.	(○ / ×)
(7) 실천 윤리학과 달리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본다.	(○ / ×)
(8)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라고 본다.	(○ / ×)
(9) 기술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경험적 탐구를 통해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본다.	(○ / ×)
(10) 메타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를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 / ×)

MEMO

(1)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도덕 현상에 대한 가치 중립적 접근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 / ×)
(2) 기술 윤리학에 따르면 윤리학은 도덕 명제의 논리적 구조 분석을 목표로 해야 한다.	(○ / ×)
(3) 기술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타 학문과의 학제적 접근을 통해 도덕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 / ×)
(4) 기술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사회 계층의 도덕의식을 인과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는 데 있다고 본다.	(○ / ×)
(5) 기술 윤리학에서는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학제적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	(○ / ×)
(6) 메타 윤리학에서는 도덕규범의 정립을 위해 윤리적인 사례들을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 / ×)
(7) 메타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갈등의 규범적 해결을 위해 가치론적 탐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	(○ / ×)
(8)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어떤 원리가 도덕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 / ×)
(9)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도덕 문제 해결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 / ×)
(10) 이론 규범 윤리학과 달리 메타 윤리학에서는 윤리학 자체가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 / ×)

— M E M O —

(1) 기술 윤리학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의 관점보다는 윤리적인 당위의 관점에서 다양한 윤리 현상을 기술한다.	(○ / ×)
(2) 메타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규범적 속성의 존재론적인 측면과 인식론적인 측면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3)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이 개인과 사회가 지향해야 할 도덕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4) 소크라테스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본다.	(○ / ×)
(5)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성찰의 자세를 함양해야 한다고 본다.	(○ / ×)
(6) 소크라테스는 부귀와 명성을 목표로 하는 삶의 자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 / ×)
(7)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 / ×)
(8) 소크라테스는 세속에서 벗어나 초월적 존재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본다.	(○ / ×)
(9) 소크라테스는 각 사람의 각 의견이 진리가 될 수 있으므로 이해타산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 / ×)
(10)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실천함으로써 타고난 품성적 덕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 / ×)

MEMO

(1)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행위와 감정에서 중용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2)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과 행위에서 악하다는 것은 언제나 모자라지 않고 지나치다는 것이다.	(○ / ×)
(3)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악덕 자체와 중용 사이의 중간인 최적의 상태를 지향하여 행위해야 한다.	(○ / ×)
(4)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보다는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고려하여 행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5)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중용을 악덕과의 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
(6)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중용은 악덕 사이의 중간점인 최적의 상태에 존재한다.	(○ / ×)
(7)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언행에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도록 절제하며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 / ×)
(8)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감정과 행위는 덕과 관련하므로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있을 수 없다.	(○ / ×)
(9)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행위가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항상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10)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 지나침에 따른 덕과 모자람에 따른 덕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 / ×)

MEMO

(1)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지나침과 모자람은 악덕의 특징이고, 중용은 덕의 특징이다.	(○ / ×)
(2)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과 고통이 모두 지나침과 모자람을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본다.	(○ / ×)
(3)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정념과 달리 인간의 행위에는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존재한다.	(○ / ×)
(4)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 지성적 덕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 / ×)
(5)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중용은 최선의 것의 극단이다.	(○ / ×)
(6)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적 능력과 덕은 후천적 형성의 대상이다.	(○ / ×)
(7)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것도 욕구하지 않는다고 본다.	(○ / ×)
(8)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절제 있는 사람은 즐거움의 가치 그 이상으로 즐거움을 좋아할 수 있다.	(○ / ×)
(9)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 / ×)
(10)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나쁜 것은 중용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 / ×)

MEMO

(1) 밀에 따르면 소수의 의견에 대한 묵살은 오직 다수의 의견이 진리일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 / ×)
(2) 밀은 소수의 의견을 꼭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 / ×)
(3) 밀은 절대적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소수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 / ×)
(4) 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토론이 필요하다.	(○ / ×)
(5) 밀은 반대 없는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진정한 진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 / ×)
(6) 밀은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입장도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 ×)
(7) 밀은 다수의 의견을 절대적인 진리로 간주하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8) 밀은 자유로운 토론의 유용성이 소수 의견의 진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 / ×)
(9) 밀에 따르면 사회 다수의 전통적 원리나 학설에 대해서는 비판을 제한해야 한다.	(○ / ×)
(10) 밀은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이 비록 진리 획득에는 방해가 되더라도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태도라고 주장한다.	(○ / ×)

— M E M O —

(1) 밀에 따르면 소수의 의견은 다수의 의견과 달리 일반적으로 진리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 / ×)
(2) 칸트에 따르면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일지라도 도덕적 행위가 아닐 수 있다.	(○ / ×)
(3) 칸트는 벤담과 달리 자신의 쾌락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행위도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 ×)
(4) 칸트는 선의지가 아닌 기질상의 선들은 그 자체로 선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5) 칸트에 따르면 인간이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는 내적 강제에 따르는 타율적인 행위이다.	(○ / ×)
(6) 칸트는 개인의 준칙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7) 매킨타이어는 주어진 상황과 관계없이 인간이 도덕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8) 매킨타이어는 사회적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행위만이 옳은 행위라고 주장한다.	(○ / ×)
(9) 석가모니는 하늘이 부여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비(慈悲)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10) 석가모니와 장자 모두 욕망의 충족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MEMO

(1) 노자는 인간이 덕(德)을 지니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2) 노자에 따르면 인(仁)과 의(義)는 자연에 도(道)가 생겨날 때 함께 생겨난 것이다.	(○ / ×)
(3) 불교에서는 불성(佛性)이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본다.	(○ / ×)
(4) 맹자는 이상적 인간인 대장부(大丈夫)가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5)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모든 행위는 도덕적이라고 본다.	(○ / ×)
(6) 아퀴나스는 인간이 비이성적 존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 / ×)
(7)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기 보존을 추구한다.	(○ / ×)
(8) 칸트에 따르면 행복의 원리가 준칙의 기반이 되는 경우는 없다.	(○ / ×)
(9) 벤담과 밀과 달리 칸트는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가 도덕적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 ×)
(10) 칸트와 달리 밀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행복 추구라는 동기에 따라 행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MEMO

(1) 매킨타이어는 도덕 판단에서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보다는 행위의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 / ×)
(2)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유덕한 사람이 할 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3)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의 전통이 아니라 정언 명령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고 본다.	(○ / ×)
(4)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의 역사적 특수성을 배제한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 ×)
(5) 매킨타이어는 행위자의 성품보다는 행위 자체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도덕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	(○ / ×)
(6) 노자와 달리 공자는 통치자가 시비선악(是非善惡)을 분별하며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 / ×)
(7) 노자는 이상적인 통치가 백성의 무욕(無欲)과 무지(無智)를 지향한다고 본다.	(○ / ×)
(8) 노자는 현자(賢者)를 숭상함으로써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 / ×)
(9) 공자와 달리 노자는 법과 제도만으로 통치하는 것은 최선의 정치가 아니라고 본다.	(○ / ×)
(10) 칸트에 따르면 보편화 가능한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

— M E M O —

(1) 칸트는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의무에 부합할 수 없다고 본다.	(○ / ×)
(2) 칸트에 따르면 행위 결과의 유용성이 행위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 / ×)
(3) 칸트에 따르면 정언 명령은 언제나 특정한 목적에 대한 수단적인 선을 제공한다.	(○ / ×)
(4) 공자와 노자 모두 도(道)를 따르기 위해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본다.	(○ / ×)
(5) 공자와 노자 모두 인(仁)을 실현하기 위한 수양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 / ×)
(6) 노자와 달리 공자는 개인의 사사로운 욕구를 극복하여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 / ×)
(7) 노자와 달리 공자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덕(德)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 / ×)
(8) 공자와 노자 모두 사회 혼란의 극복을 위해서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 ×)
(9) 노자는 통치자가 영토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위(無爲)에 어긋난다고 본다.	(○ / ×)
(10) 노자에 따르면 통치자는 지혜를 쌓고 공적을 세워 백성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 / ×)

MEMO

(1) 공자는 제도나 형벌보다는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2) 공자는 법이나 형벌이 아니라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3) 노자는 지혜로운 사람[賢者]을 숭상하는 것이 인위적인 행위라고 본다.	(○ / ×)
(4)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의무에 맞는 경우에만 도덕적이라고 본다.	(○ / ×)
(5) 공리주의와 달리 칸트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 ×)
(6) 칸트와 달리 공리주의에서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행위가 도덕적이라고 본다.	(○ / ×)
(7) 규칙 공리주의와 달리 칸트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행위 원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 / ×)
(8) 칸트와 달리 규칙 공리주의에서는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규칙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 / ×)
(9) 노자는 무위(無爲)의 덕(德)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을 힘보다는 예(禮)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10) 노자는 나라의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성인(聖人)의 다스림에 어긋난다고 본다.	(○ / ×)

MEMO

(1) 칸트는 보편화 가능하지 않은 준칙은 도덕 법칙과 일치할 수 없다고 본다.	(○ / ×)
(2) 칸트에 따르면 가언 명령은 목적에 대한 수단적인 선을 제공한다.	(○ / ×)
(3) 노자에 따르면 시비선악(是非善惡)의 엄격한 분별이 사회 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 / ×)
(4) 벤담은 고통이나 쾌락과 무관한 인간 행위의 근본 원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 / ×)
(5) 칸트는 오직 의무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행복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 ×)
(6) 칸트는 도덕적 행위가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본다.	(○ / ×)
(7) 칸트에 따르면 도덕과 행복은 양립 불가능하다.	(○ / ×)
(8) 칸트는 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일 수도 유용할 수도 없다고 본다.	(○ / ×)
(9) 벤담에 따르면 공리의 원리에 일치하는 행위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 ×)
(10) 석가모니는 자신의 생명을 해치면 안 되는 것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 ×)

MEMO

(1) 맹자는 인간이 도덕적 실천을 통해 도덕적 지각 능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2) 맹자와 장자 모두 인간이 도(道)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며 덕(德)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 / ×)
(3) 장자에 따르면 삶과 죽음은 자연계를 지배하는 초월자의 의지가 반영된 현상이다.	(○ / ×)
(4) 장자에 따르면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봄으로써 사물들의 차별적인 위계질서를 깨달을 수 있다.	(○ / ×)
(5) 맹자는 군주가 즐거움을 백성과 함께 나누는[與民同樂]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 / ×)
(6) 맹자에 따르면 군주는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통치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 / ×)
(7) 맹자는 통치자가 차별 없는 사랑[兼愛]을 실천함으로써 사욕(私慾)을 극복하고 예(禮)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 ×)
(8) 노자에 따르면 통치자는 백성을 무지(無知)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치를 시행해야 한다.	(○ / ×)
(9) 노자는 통치자가 올바른 정치를 시행하기 위해 인의(仁義)의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 / ×)
(10) 벤담은 보편적 도덕 원리가 아닌 공동체의 전통에 부합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본다.	(○ / ×)

MEMO

(1) 벤담은 인간이 동정심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의무 의식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2) 자연법 윤리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으로 자연법을 형성하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 / ×)
(3)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의 만물은 영원법에 종속되어 있다.	(○ / ×)
(4)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의 법칙에 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이성적인 방식으로 영원법에 참여한다.	(○ / ×)
(5) 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형체가 없는 도(道)를 감각 경험으로 체험할 수 있다.	(○ / ×)
(6) 노자에 따르면 도(道)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자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 / ×)
(7) 맹자에 따르면 소인(小人)과 달리 군자(君子)는 태어날 때부터 사단(四端)이라는 선한 마음을 타고난다.	(○ / ×)
(8) 석가모니에 따르면 중생은 생각, 말, 행동으로 짓는 업(業) 때문에 윤회한다.	(○ / ×)
(9)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실천 이성이 우리 자신에게 부과하는 자율적인 명령이다.	(○ / ×)
(10) 칸트에 따르면 보편화되지 않는 준칙은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없다.	(○ / ×)

MEMO

(1) 아퀴나스에 따르면 영원법의 내용은 계시와 이성 작용을 통해 인간에게 알려질 수 있다.	(○ / ×)
(2) 칸트와 달리 아퀴나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자연적 성향을 준수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 / ×)
(3) 아퀴나스는 영원불변하는 질서와 법칙인 영원법이 사물의 본성에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 / ×)
(4) 아퀴나스는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영원법이 자연법의 근거라고 본다.	(○ / ×)
(5) 맹자에 따르면 사람이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재질의 잘못이다.	(○ / ×)
(6) 장자에 따르면 세속적인 입장에서 만물을 바라보았을 때 귀천(貴賤)은 도(道)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게 된다.	(○ / ×)
(7) 공자와 장자 모두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적 본성을 부여하였다고 본다.	(○ / ×)
(8) 칸트와 달리 매킨타이어는 인간의 자연적 감정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 ×)
(9) 벤담과 달리 칸트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 / ×)
(10)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존재이다.	(○ / ×)

MEMO

(1) 장자는 외물(外物)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 / ×)
(2) 노자는 무위(無爲)의 덕(德)으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본다.	(○ / ×)
(3) 석가모니에 따르면 오온(五蘊)은 일시적 결합에 불과하므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	(○ / ×)
(4) 석가모니는 삼독(三毒)에 도달하기 위해 중도(中道)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5) 칸트와 달리 벤담은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모두 증가시킨 행위만이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 / ×)
(6) 아퀴나스는 인간이 자연적 성향을 따르면 현세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7) 아퀴나스와 달리 칸트는 인간의 바람직한 행위가 이성에 근거한다고 본다.	(○ / ×)
(8) 벤담과 밀 모두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9) 밀은 행복의 증대와 무관한 순수한 희생이 도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 / ×)
(10) 벤담과 밀 모두 개인의 행복의 총합을 초과하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MEMO

(1) 칸트와 매킨타이어 모두 유덕한 품성이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를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 / ×)
(2) 맹자에 따르면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욕구 때문에 불선(不善)해지는 경우는 없다.	(○ / ×)
(3) 칸트는 어떤 것이 행위의 준칙이 될 수 있다면 그것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4) 석가모니에 따르면 모든 중생은 자비(慈悲)를 실천하여 불성(佛性)을 형성해야 한다.	(○ / ×)
(5) 석가모니에 따르면 인간을 구성하는 색, 수, 상, 행, 식은 무상(無相)하지 않다.	(○ / ×)
(6) 석가모니는 계율, 선정, 지혜를 함께 닦아 무명(無明)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7) 석가모니는 고통의 원인이 집착임을 깨닫고 다른 존재에게 자비(慈悲)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8) 석가모니에 따르면 탐욕[貪], 성냄[瞋], 어리석음[癡]을 제거하여 번뇌(煩惱)를 일으켜야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 / ×)
(9) 공자는 인(仁)의 덕을 갖춘 사람은 타인을 미워할 줄 모른다고 주장한다.	(○ / ×)
(10) 노자는 백성의 존경과 선망을 받는 통치자가 최고의 통치자라고 본다.	(○ / ×)

MEMO

(1) 아리스토텔레스와 벤담 모두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 ×)
(2) 밀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질적으로 높은 쾌락만을 추구할 것이라고 본다.	(○ / ×)
(3) 유교에서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부터 수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4) 불교에 따르면 만물의 실상(實相)을 바로 보지 못하면 번뇌(煩惱)가 발생한다.	(○ / ×)
(5) 유교와 도가에서는 모두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서는 덕(德)을 갖추기 위한 수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 ×)
(6) 공자에 따르면 인(仁)은 사랑의 정신이자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다.	(○ / ×)
(7) 석가모니에 따르면 불성(佛性)은 부처의 마음이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근거이다.	(○ / ×)
(8) 석가모니는 모든 중생이 불성(佛性)을 지니며 연기의 법칙에 따라 연결되어 있으므로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 / ×)
(9) 석가모니에 따르면 인간은 모든 번뇌의 속박과 고통에서 해방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 / ×)
(10) 도가에 따르면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은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 ×)

MEMO

(1) 공자에 따르면 예(禮)는 인(仁)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다.	(○ / ×)
(2) 노자에 따르면 도(道)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생성 변화의 법칙이다.	(○ / ×)
(3) 노자에 따르면 소국과민(小國寡民)은 인위적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無爲)와 무욕(無欲)의 이상 사회이다.	(○ / ×)
(4)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 원인과 조건이 된다고 주장한다.	(○ / ×)
(5) 석가모니에 따르면 태어남은 즐거움이지만 늙음과 병듦과 죽음은 고통이다.	(○ / ×)
(6) 유교에 따르면 서(恕)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 / ×)
(7) 맹자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업[恒産]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백성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 / ×)
(8) 유교에서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양하면 누구나 군자(君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 ×)
(9) 칸트는 오로지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 / ×)
(10)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의 공통적인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 / ×)

— M E M O —

(1)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의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도덕 규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 ×)
(2) 공자에 따르면 예(禮)는 인(仁)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외적 규범이다.	(○ / ×)
(3) 석가모니에 따르면 연기의 법칙은 모든 것이 상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함을 의미한다.	(○ / ×)
(4) 석가모니는 연기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 자기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는 자비(慈悲)의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 / ×)
(5) 석가모니에 따르면 중도(中道)는 쾌락과 고통의 양극단에서 벗어난 수행 방법이다.	(○ / ×)
(6) 노자는 물은 낮은 곳에 머무르며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남들과 다투지 않으므로 인간은 물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7) 장자는 도(道)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일체의 가치 분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 ×)
(8) 칸트는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9) 칸트는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만이 이 세상에서 무제한적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본다.	(○ / ×)
(10) 벤담은 오직 쾌락과 고통만이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동인(動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

MEMO

(1) 벤담에 따르면 한 쾌락이 동반하는 고통이 얼마나 적은지와는 무관하게 그 쾌락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 / ×)
(2) 매킨타이어는 덕이 사회적 실천에 내재하는 선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성품이라고 본다.	(○ / ×)
(3) 도가에서는 제물(齊物)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좌망(坐忘)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 / ×)
(4) 불교에서는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삼독(三毒)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5) 장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스럽고 소박한 본성을 타고난다.	(○ / ×)
(6) 벤담과 달리 밀은 질적으로 낮고 저급한 쾌락은 선(善)이 아니라고 본다.	(○ / ×)
(7) 밀과 달리 칸트는 행위의 선악을 판별하는 도덕적 원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 / ×)
(8) 매킨타이어는 선천적인 도덕적 덕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9) 매킨타이어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마땅히 공익의 극대화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행위해야 한다고 본다.	(○ / ×)
(10)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맥락적 사고가 아닌 절대적 도덕 원리에 따른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	(○ / ×)

MEMO

(1) 공자와 달리 장자는 조용히 앉아서 모든 시비 분별을 잊을 것을 강조한다.	(○ / ×)
(2) 유교에서는 하늘이 부여한 순선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3) 불교에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님[自他不二]를 깨닫고 만물에 대한 평등한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4) 석가모니에 따르면 이 세상에 원인과 조건 없이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없다.	(○ / ×)
(5) 석가모니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만물의 상호 독립성을 자각해야 한다고 본다.	(○ / ×)
(6) 노자에 따르면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은 인위(人爲)로써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 / ×)
(7) 노자는 인간이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德)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8) 노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분별을 통해 천지 만물의 근원인 도(道)를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9)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는 목적 달성에 기여할 때마다 그 가치가 무제한적으로 증가한다.	(○ / ×)
(10) 칸트는 개인이 규정한 행위 원리는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

MEMO

(1) 진화 윤리학에서는 인간의 이타적 행위가 자유 의지에 따른 자발적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 / ×)
(2) 진화 윤리학에 따르면 인간이 타인을 돕고자 하는 행위는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선택된다.	(○ / ×)
(3) 진화 윤리학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므로 인간이 타인을 배려하는 성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 / ×)
(4) 맹자는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도덕적 기개인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5) 맹자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발휘하여 이기적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본다.	(○ / ×)
(6) 석가모니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이 무명(無明)과 애욕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 ×)
(7) 벤담과 달리 칸트는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 / ×)
(8)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하고 따를 수 있는 존엄한 존재이다.	(○ / ×)
(9) 칸트와 벤담은 모두 도덕적 품성의 형성보다는 도덕 원리의 준수를 중시한다.	(○ / ×)
(10) 맹자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兼愛]은 인간의 선한 본성에서 비롯된다.	(○ / ×)

MEMO

(1) 벤담과 밀은 모두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 ×)
(2) 벤담과 밀은 모두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을 동일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3) 벤담은 쾌락의 질보다는 양에 따라 쾌락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본다.	(○ / ×)
(4) 밀은 여러 가지 쾌락을 경험한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이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주장한다.	(○ / ×)
(5) 장자와 달리 맹자는 인위의 규범이 인간의 본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본다.	(○ / ×)
(6) 장자와 달리 맹자는 타고난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 / ×)
(7) 장자와 달리 맹자는 군주가 도덕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본다.	(○ / ×)
(8) 맹자와 달리 장자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시비(是非)의 분별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9) 맹자와 장자는 모두 이상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도(道)를 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10) 석가모니는 괴로움의 발생에는 이유가 없지만 괴로움의 소멸에는 조건이 존재한다고 본다.	(○ / ×)

MEMO

(1) 석가모니에 따르면 인간은 마음속의 번뇌를 제거하여 불변의 오온(五蘊)을 형성해야만 해탈할 수 있다.	(○ / ×)
(2) 석가모니는 극단적인 고행의 수련을 통해 중도(中道)에 도달해야 한다고 본다.	(○ / ×)
(3) 석가모니는 욕망을 절제하고 무명(無明)에 도달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	(○ / ×)
(4) 석가모니는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 인간의 자아는 무상(無常)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본다.	(○ / ×)
(5) 장자와 달리 석가모니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 / ×)
(6) 아퀴나스는 인간과 다른 존재 간에 자연적 성향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 ×)
(7) 아퀴나스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결과의 유용성에 있다고 본다.	(○ / ×)
(8) 노자에 따르면 인의(仁義)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無爲]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낫다.	(○ / ×)
(9)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는 자기 보존의 성향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고 본다.	(○ / ×)
(10) 아퀴나스는 인간이 타고난 자연적 성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덕 법칙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 / ×)

MEMO

(1) 벤담과 달리 칸트는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
(2) 벤담과 달리 칸트는 경향성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이라고 본다.	(○ / ×)
(3) 벤담에 따르면 사회 전체의 이익이란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 그 이상이다.	(○ / ×)
(4) 벤담과 밀은 모두 공익 증진을 위해 개인의 이익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5) 밀은 이타적인 의도에 따른 행위는 모두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본다.	(○ / ×)
(6) 매킨타이어와 밀은 모두 자연적 감정에 따른 행위도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 ×)
(7) 밀과 달리 매킨타이어는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 / ×)
(8) 밀과 달리 매킨타이어는 행위의 유용성을 따지는 것보다 행위자의 도덕성을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 / ×)
(9) 벤담과 달리 칸트는 어떤 행위가 의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그 행위의 도덕성을 판별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본다.	(○ / ×)
(10)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덕은 도덕적 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타고난 성품이다.	(○ / ×)

MEMO

(1) 노자는 통치자가 무위(無爲)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 / ×)
(2)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을 쫓아서 일어난 의지는 무조건적으로 선택 의지이다.	(○ / ×)
(3) 칸트는 인간이 동물과 달리 자연적 경향성을 타고나지 않은 존재라고 주장한다.	(○ / ×)
(4) 칸트에 따르면 선험적인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 경향성을 극복하고 실천 이성을 따르라는 명령으로 다가온다.	(○ / ×)
(5) 칸트에 따르면 선의지는 모든 목적 달성을 가능케 하므로 절대적으로 선택 의지이다.	(○ / ×)
(6) 맹자는 한 번의 의로운 행위로도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 / ×)
(7) 석가모니에 따르면 팔정도(八正道)는 열반(涅槃)으로 인도하는 중도(中道)의 수행법이다.	(○ / ×)
(8) 맹자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만이 도덕적 기개를 갖춘 대장부(大丈夫)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9) 맹자에 따르면 사랑은 시비(是非)를 구별하여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
(10) 공자에 따르면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것[忠]은 인(仁)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 / ×)

MEMO

(1) 노자는 무위(無爲)의 실천을 위해 선과 악에 대한 분별적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 ×)
(2) 석가모니는 삼학(三學) 수행에 기반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3) 장자는 만물과 조화되는 경지[物我一體]에 이르기 위해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4) 장자는 마음을 텅 비우는 수양[心齋]을 통해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 / ×)
(5) 석가모니는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더라도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6) 석가모니는 오온(五蘊)의 실상을 바로 앎으로써 모든 존재와 현상이 변화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7) 벤담과 달리 석가모니는 고통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쾌락만을 쫓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8) 밀에 따르면 정신적 쾌락은 안전성의 차원에서는 육체적 쾌락보다 열등하지만 그 자체로는 더욱 고귀하다.	(○ / ×)
(9) 매킨타이어는 모든 특수한 역사와 전통을 배제하고 공동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10) 아퀴나스와 칸트 모두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따라야 할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이 있다고 본다.	(○ / ×)

MEMO

(1) 아퀴나스와 칸트 모두 인간이 이성적 능력으로 자신이 따라야 할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 / ×)
(2) 아퀴나스에 따르면 사회 속에서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성향은 인간만이 타고나는 자연적 성향이다.	(○ / ×)
(3) 아퀴나스는 자연적 성향을 따르는 것의 궁극적 목표가 인격의 도덕적 완성에 있다고 본다.	(○ / ×)
(4) 아퀴나스는 종족 유지 성향은 인간이 아닌 동물에만 주어진 자연적 성향이라고 본다.	(○ / ×)
(5) 매킨타이어와 달리 밀과 칸트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 / ×)
(6) 칸트는 의무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인간은 사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도덕 법칙에 자율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7) 칸트는 동정심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선의지에 입각한 의무로부터의 행위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주장한다.	(○ / ×)
(8) 칸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후천적 경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법칙만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	(○ / ×)
(9)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필연성에 입각한 행위이다.	(○ / ×)
(10) 노자와 달리 맹자는 인의(仁義)를 실현하여 인륜(人倫)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MEMO

(1) 장자와 석가모니와 달리 맹자는 인간이 지혜를 바탕으로 이상적 경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2) 맹자는 인간의 본성에 기반을 둔 행위는 무조건 선한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 ×)
(3) 노자에 따르면 인위적인 가치관과 규범, 제도에 의해 도(道)가 자연스럽게 행해질 때 사회 혼란이 발생한다.	(○ / ×)
(4) 장자에 따르면 궁극적으로는 도(道)가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 / ×)
(5) 장자는 이상적 인간이 세속적 관점이 아닌 사물의 관점에서 만물의 귀천을 평가한다고 본다.	(○ / ×)
(6) 장자는 도(道)의 관점을 지니기 위해서는 모든 수양법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7) 공자에 따르면 내면적 도덕성인 인(仁)이 바깥으로 표출된 것이 곧 예(禮)이다.	(○ / ×)
(8) 장자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도(道)로부터 부여받은 소박한 본성이다.	(○ / ×)
(9) 맹자는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구함[求放心]으로써 잘못된 욕구에 본성이 가려져 불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
(10) 맹자는 통치자가 백성에게 도덕적 감화를 주어 인의(仁義)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MEMO

(1) 칸트와 달리 벤담은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자연적으로 타고 난다고 주장한다.	(○ / ×)
(2) 칸트와 달리 벤담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토대로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3) 칸트와 달리 아퀴나스는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행위가 의무와 일치할 수 있다고 본다.	(○ / ×)
(4)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이나 신과 달리 실천 이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 / ×)
(5) 칸트는 도덕적 행위가 보편적 도덕 법칙의 강제에 행위자가 복종하는 비자율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 / ×)
(6)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에 입각한 행위가 의무에 맞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 ×)
(7) 밀은 쾌락의 양과 질이 비례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 / ×)
(8) 밀과 달리 칸트는 모든 배려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단정할 수 있다고 본다.	(○ / ×)
(9) 석가모니는 모든 생명이 연기(緣起)를 바탕으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10) 석가모니에 따르면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윤회(輪廻)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의 실천 방법이다.	(○ / ×)

— M E M O —

(1) 벤담에 따르면 공리의 원리가 또 다른 도덕 원리에 의해 규제될 필요는 없다.	(○ / ×)
(2) 벤담은 인간 행위의 궁극적 근거를 오직 고통이나 쾌락에서 찾는다.	(○ / ×)
(3) 벤담에 따르면 쾌락은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가 고려해야 하는 유일한 목적이다.	(○ / ×)
(4) 노자에 따르면 백성이 군주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 / ×)
(5) 노자는 백성이 군주를 선망하고 존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 / ×)
(6) 노자에 따르면 가장 좋은 통치는 백성이 군주의 존재만 알거나 군주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 / ×)

M E M O

정답표

단원명	정답	단원명	정답
윤리학의 분류	01 ~ 10 : 이론 규범 윤리학 실천 윤리학 OX 기술 윤리학 XXOOO	동양 윤리	01 ~ 10 : XO 유교 OO XXOOO 11 ~ 20 : XXXOO OXXOX 21 ~ 30 : OO 불교 도가 도가 유교 도가 유교 도가 X 31 ~ 40 : OXOXO XXOOO 41 ~ 50 : XXXXX XXOXO
서양 윤리	01 ~ 10 : XOOOO XOXOX 11 ~ 20 : XOOXX 칸트 XOXO 21 ~ 30 : OXXXX OXXX 아리스토텔레스 31 ~ 33 : 매킨타이어 XX		

쪽수	정답
11쪽	① 실천 윤리학 ② 이론 규범 윤리학 ③ 기술 윤리학 ④ 메타 윤리학
12쪽	① 이론 규범 윤리학 ② 메타 윤리학 ③ 이론 규범 윤리학 ④ 메타 윤리학
13쪽	① 이론 규범 윤리학 ② 실천 윤리학 ③ 기술 윤리학 ④ 메타 윤리학
14쪽	① 아리스토텔레스 ② 도가 ③ 매킨타이어 ④ 불교
15쪽	① 도가 ② 밀 ③ 도가 ④ 유교
16쪽	① 매킨타이어 ② 칸트 ③ 도가 ④ 유교
17쪽	① 칸트 ② 유교 ③ 밀 ④ 유교
18쪽	① 칸트 ② 밀 ③ 도가 ④ 아퀴나스
19쪽	① 도가 ② 유교 ③ 도가 ④ 유교
20쪽	① 소크라테스 ② 도가 ③ 규칙 공리주의 ④ 칸트
21쪽	① 벤담 ② 유교 ③ 도가 ④ 유교
22쪽	① 도가 ② 유교 ③ 불교 ④ 도가
23쪽	① 벤담 ② 도가

쪽수	정답	쪽수	정답
24쪽	O O O X O O O O O O	25쪽	O O O O O O X O X X
26쪽	X O O O X O O O O O	27쪽	O X O X O X X X X O
28쪽	O X O O X O O O O O	29쪽	O X X O O X X O O O
30쪽	X X X O X X X O O O	31쪽	X O O X O O X X X X
32쪽	X X X X X O O X X X	33쪽	O O X O O X X X X X
34쪽	X O X X X O X X X X	35쪽	X O X O X X X X X O
36쪽	O X X O X O O X X X	37쪽	X O X X X O O X X O
38쪽	X O X X X O X X O X	39쪽	O X O X X X X O X O
40쪽	O O X X O O X X X O	41쪽	X O X X O O X X X X
42쪽	X X O X X O X O O X	43쪽	O O O O X X X O X O
44쪽	O X O X X X X O X X	45쪽	X X X X X X O X X X
46쪽	O X O O O O O O X O	47쪽	O O O O X X O O O O
48쪽	O O O O O O O O O O	49쪽	X O O X O X X X X X
50쪽	O O O O X X O X X X	51쪽	X X X O X O X O O X
52쪽	O X O O O X O O O X	53쪽	X X X X O X X X O X
54쪽	X O X X X O X O X X	55쪽	O O X O X X O X O O
56쪽	X O X X X O X X X O	57쪽	O O X X X O O X X O
58쪽	X O X X X X O O O O	59쪽	X O X X X X X X O O
60쪽	O O O O X O		